

## 윤 5월은 선업쌍는 달

### 전국 사암서 생전예수재...업장소멸 발원

나의 업장은 몇년이나 될까?  
 전국 대부분의 사암이 윤5월을 한 달 앞두고 생전예수재(生前修齋)를 입재했거나 준비를 서두르고 있다. 주로 윤달을 택해 봉행되는 생전예수재는 자신의 업장을 씻고 선업쌍기를 발원하는 제의식. 이 기간동안 각 사암은 선명부모 영가 천도는 물론 정생 인연으로 맺은 각종 원한과 악연에 묶인 영가를 소멸하는 재를 49일동안 봉행한다. 법계의 식, 수계식, 3사순례, 방생법회, 철야정진 등도 다양하게 기획하고 있다.

특히 금년 생전예수재 기간에는 IMF를 한마음 한뜻으로 극복하려는 서원과 어린 영혼 천도법회 등도 마련돼 눈길을 끌고 있다. 합천 해인사(주지 보공)를 비롯 일부 사암에서는 경제난극복을 발원하는 예수재를 봉행할 계획이며, 서울 금강사(주지 자우)는 26일부터 7월 13일까지 태아(태태)영가 49재 천도법회를 각각 봉행한다. 강화 보문사(주지 원종)는 7월 22일 경제난 극복을 발원하는 철야정진을 갖고 29일 수계법회를, 동해 삼화사(주지 원행)는 적멸보궁을 참배하는 3사순례를 각각 실시한다.

기복불교라는 비판을 받아 오기도 했지만 생전예수재는 합회와 선업을 발원하는 본래의 선행 의식으로 정착되고 있다. 이는 생전예수재가 과거와 현재의 자기를 반조하고 바른 삶을 다짐하는 경건한 의식으로 자리잡아 가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불설관정수원생생사방정토경〉은 “예수재를 지낸 공덕은 불에 부린 한알의 씨앗이 가을에 천만개의 씨앗을 거두는 것과 같다”고 설하고 있다. 또 생전예수재를 지냄으로써 △전생과 내세의 업장소멸 △무병장수 △극락왕생 등 10가지 공덕이 얻어진다고 강조하고 있다.

IMF 시대, 전 국민의 반상과 새로운 다짐이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봉행되는 생전예수재에는 어느해보다 많은 불자들이 동참. 6월과 7월 두달은 불자들이 참회와 선행 실천을 발원하는 기간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 종전스님들의 지적이다. 〈관련기사 6면〉

김종근 기자

“아저씨 예쁜 옷장과 이불장을 만들어 주셔서 고맙습니다.” “뭘, 너희들은 공부만 열심히 하면 돼.”

지난 4월19일 경기도 시흥시 거모동 작은 숲속에 위치한 불교계 보육원인 송암동산(원장 박금침), 40여명의 원생들이 2층 서쪽 끝방에 모여 박수를 치며 좋아했다. 그동안 알아서 문이 잘 닫히지도 않던 옷장과 이불장이 불박이장으로 새롭게

### 작은 실천 큰 기쁨

####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단장되자 원생들이 감사의 표시를 보낸 것이다. 지난해 3월부터 한달씩 불박이장을 설치하기 시작, 이날 열번째 방을 끝으로 공사를 회향한 주인공은 ‘책수 아저씨’ 박종우씨(43). 서울 사당동에서 홈 인테리어 사무실 ‘조우 인퍼니체’를 운영하는 박씨는 IMF시대에도 불구, 개당 1백 2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불박이장 열개를 사재를 들여 설치해 주었다.

박씨가 송암동산과 인연을 맺은 것은 지난해 3월, 유니텔불교동회(회장 김희정) 회원의 일원으로서 이곳을 방문한 그는 경치 좋은 숲속에 위



치한 불교 보육원에서 맑은 눈동자의 선재동자들을 만났다. 유치원생(4명)으로부터 대학생(1명)에 이르기까지 세속에 물들지 않은 46명의 어린 영혼들을 보는 순간 중1·초등학교 6학년인 두 딸이 떠올랐다.

박씨는 그때부터 매달 셋째 일요일 보육원을 방문, 방마다 칫수를 재고 필요한 재료를 직접 봉고 차로 싣고 와 작업을 벌였다.

그는 15년간 믿어 온 기독교에서 개종한 지 불과 1년밖에 지났지만 불교적인 사고 속에서 나누며 살아가는 일이 더없이 행복하다. 어머니 정래희보살(88)의 간절한 기도로 꿈에 강하 보문사 나한님들을 친견, 불교에 연이 닿았다는 박씨는 그 인연을 시작으로 최근 4형제 모두 기독교에서 불교로 개종하게 한 원력봉사를 성취하기도 했다.

“도움이 된다면 인연에 있는 대부분도 ‘종지소년의 집’ 개축봉사를 도와 줄 생각이예요. 불들이 원생들과 함께 감사 고추 등 채소와 영두 등 과일 따며 정겨운 시간도 보내고 싶어요.”

박씨는 하지만 여유로운 ‘나눔의 삶’을 음미할 줄 아는 불자다. (김재경 기자)

구독료납부 은행지번 3054464  
 우체국 계좌번호 010041-0255243  
 인터넷 부다피아 http://www.buddhapia.com



◇경북 고령 군수의 군의원 후보자 16명이 15일 해인골프장 건설 취소를 약속했다.

### 6·4선거 후보들 불심잡기 '바쁘다'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불심잡기에 바쁜 공역단체장 후보들이 불교공약을 속속 발표하고 있다.

최병렬 서울시장후보는 21일 고계기차회견을 통해 부처님오신날 연등축제를 서울의 거리축제로 승화시키고 조계사 부근을 불교문화의 거리로 조성키 위해 조계사 불사에 적극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시에서 건립해 위탁운영하는 공공복지시설에 대한 불교계 운영을 확대해 종교간의 불균형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김기재 부산시장후보는 사찰수행환경권 보호, 범어사 산악사 상광사 등 전통사찰 및 주요사찰을 문화관광명소로 개발해 내·외국인이 사찰문화를 근근하게 접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고재유 광주시장 후보는 불교문화재에 대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을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특히 경북도의회와 고령군수, 고령군의회 후보자 16명은 15일 고령군청 회의실에서 “당선 여부에 관계없이 해인골프장 건설이 취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서약서를 가졌다.

후보들의 사찰행렬도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고건 최병렬 두 서울시장후보가 나란히 26일 조계사 초하루법회에 참석, 불자들에게 지지를 당부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지역불교계에서 각 후보들에게 사찰수행환경 및 문화재 보호 등 불교현안을 알리고 이에 대한 대책을 이끌어내는 등 지방선거는 계기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관련기사 3·20면〉



◇동국대 부속 불교종합병원 기공식이 1천여 사부대중이 참가한 가운데 16일 경기도 일산 부지에서 거행됐다.

### 동국대 불교종합병원 '첫삽'

일산 식사동에...1천여 병상 2003년 완공

동국대(총장 송석구) 부속 불교종합병원 기공식이 16일 일산시 식사동 병원부지에서 열렸다.

오석원 이사장을 비롯 조계종 송월주 총무원장, 황명수 총동량회장 등 사부대중 1천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된 이날 기공식에서 송석구 총장은 “불교종합병원은 1천여 병상 규모로 생명 존중의 인간화, 최첨단 의료장비화, 한·양방 의학정보 공유화를 지향한다”며 “2003년 완공까지 중단과 2천만 불자들, 동문 및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동참을 바란다”고 말했다.

또 오석원 이사장은 고사를 통해 “1천6백년 한국불교의 속원사업의 첫발을 던져진 것을 기쁘게 생각한다”며 원만한 회향을 기원했다. 이어 병원건립 시작을 알리는 시복과 함께 김병조·홍진경의 사회로 축하공연이 진행됐다.

한편 이날 기공식에서는 오오나니대학, 불교대학, 류교무대학 등 일본 지대대학 축하사절단이 1억원의 기금을 전달한 것을 비롯 ‘지비의 벽을 한 장 통찰운동’을 펼쳐 2천만원의 병원기금을 조성했다.

### 조계종 중앙총회 6월15일 개회

성원미달로 유회를 거듭하다 ‘예산론’까지 대두됐던 조계종 임시중앙총회가 6월15일부터 5일간의 회기로 열린다.

이번 총회에서는 각종 선거법을 비롯한 종법제개정안 등 산적한 현안이 다뤄질 계획이다. 그러나 이번 총회도 성원미달 등으로 유회될 경우 종회해산 등 심각한 상황으로 물릴 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 동화사 후임주지 성덕스님 임명

송광사, 현지스님 추천

조계종 총무원은 21일 제9교구본사 동화사 후임주지로 성덕스님을 임명했다.

한편 제21교구 송광사는 9일 산중총회를 열고 3일로 주지 임기가 마감된 현고스님의 후임에 현지스님(광주 원효사주지)을 선출했다.

### 불교문화 체험기행

6월의 불교문화 체험기행은 절조비르자나불화상(극복 제63호)과 상충석탑(보물 제233호)이 있는 도피안사, 지장도량 심원사, 6.25때 치열했던 격전지 ‘월인 노동당사’와 ‘땅굴’ 등을 찾아갑니다.

초록보훈의 달 6월, 분단된 조국의 현실을 직시하며 통일일을 기원하는 의미있는 시간이 마련됩니다.

**6월 '6·25 격전지를 찾아'**  
 '도피안사, 심원사, 월인 노동당사, 땅굴'

○출 발: 6월 21일(일) 오전7시·조계사 앞  
 ○회 비: 3만원·초등학생 2만5천원(도리산 지참)  
 ○접수처: 현대불교신문사 (02)737-8881, 722-4162  
 혜초여행사 (02)732-3900  
 ○은행계좌: 조흥은행 322-04-221460(성정호)  
 ※ 자녀 동반, 가족단위 참가 적극 환영합니다.  
 주최: 현대불교신문사 협찬: 일양약품  
 주관: 혜초여행사

- 역사속으로 떠나는 죽음기행 -

## 남산이 북산을 보며 웃네

- 맹란자 지음 -

그대 최후가 그대의 전부이다!  
 여기 그 죽음을 빛나는 인간들의 최후를 통해서 극적으로 보여주는 전람회 있다.  
 맹란자 여사의 불교, 老莊, 그리고 周易의 여가에 그 일을 해내어 사람들을 한밤중에 깨어나게 하고 있다.

- 고은 추천사에서 -

- 유명인들의 죽음순간 생생히 묘사-〈한국일보〉 4.15.
- 세계적인 철학자, 예술가 죽음에도 달은 꼴 있었다-〈뉴스피플〉 4.23.
- 죽음앞에서 더 눈부신 삶 표현-〈경향신문〉4.17.
- 죽음 또한 자연 아늑가/ 장자, 육상산과 황수인, 소강절과 서화담
- 이 책은 읽는 재미와 함께 자기 삶을 들여다보고 내다보게 한다. 따라서 남녀노소 두루 볼 수 있는 가족 필독서-〈현대불교신문〉4.8.
- 동서양 역사인물들의 죽음에 얽힌 이야기들을 다룬 인문교양서다.-〈서울신문〉5.5.

도서출판 혜촌 서울시 강남구 포이동 228-6 남현빌딩 전화: 3462-2277 팩스: 3462-2279

지금 IMF시대, 어려운 시기에 우리웃을 입읍시다.

우리웃 — 연/지/곤/지

연지곤지는 생활한복 대중화의 최일선에서 오늘도 열심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 단체복주문시 (30인 이상) 최고급 생활한복을 ₩50,000(상하 1벌)에 공급해 드립니다.

◎ 생활한복 사업하실분 상담환영합니다. ◎

▶ 문의처 02)3461-8552~3  
 안국동 로타리에 연지곤지 전시장이 있습니다.